

세계정당인들과 함께한 임핑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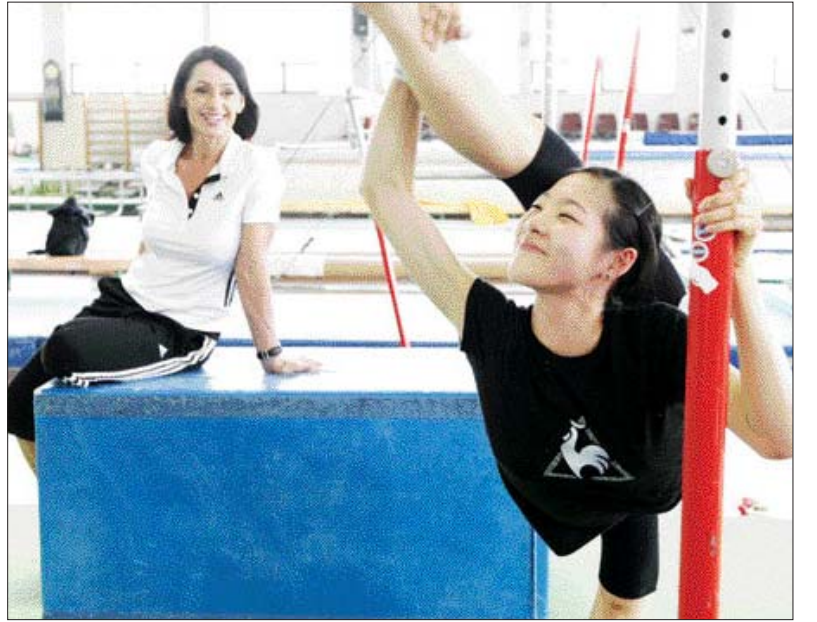
임핑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원(10) 구간 광복동원드 산봉 (당일 회원만) C형수준 클럽제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unashy.co.kr 0801-320-7700



11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일째 세광고-동산고 경기. 3회말 동산고 공격 1사 1,3루에서 3루 주자 이도훈(가운데)이 정기원의 투수 앞 번트 때 3루와 홈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려 험살당하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 세계체조갈라쇼 총연출 맡은 코마네치



오는 13일 열린 현대캐피탈 초청 세계체조갈라쇼를 앞두고 1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대 체조장에서 열린 연습에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리듬체조 국가대표인 신수지(오른쪽)가 체조여왕 코마네치의 조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체조의 진수 만끽하세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완벽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날 인터뷰에는 코마네치를 비롯해 그의 남편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체조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 중인 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캐피탈 본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현대캐피탈 인비테셔널 II 세계체조 갈라쇼’ 공식 인터뷰에서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이번 대회가 한국 체조팬에게 분명 색다른 재미를 안겨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13일부터 사흘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한일광장에서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전날 입국한 코마네치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 갈라쇼를 통해 한국에서 체조가 보다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갈라쇼는 일반 체조대회와는 전혀 다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대회다. 의상도 분장도 독특해 많은 팬들이 체조의 모든 것을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코마네치를 비롯해 그의 남편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체조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 중인 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캐피탈 본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현대캐피탈 인비테셔널 II 세계체조 갈라쇼’ 공식 인터뷰에서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이번 대회가 한국 체조팬에게 분명 색다른 재미를 안겨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13일부터 사흘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한일광장에서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전날 입국한 코마네치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 갈라쇼를 통해 한국에서 체조가 보다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갈라쇼는 일반 체조대회와는 전혀 다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대회다. 의상도 분장도 독특해 많은 팬들이 체조의 모든 것을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코마네치를 비롯해 그의 남편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체조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 중인 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캐피탈 본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현대캐피탈 인비테셔널 II 세계체조 갈라쇼’ 공식 인터뷰에서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이번 대회가 한국 체조팬에게 분명 색다른 재미를 안겨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13일부터 사흘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한일광장에서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전날 입국한 코마네치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 갈라쇼를 통해 한국에서 체조가 보다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갈라쇼는 일반 체조대회와는 전혀 다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대회다. 의상도 분장도 독특해 많은 팬들이 체조의 모든 것을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취문, 12회 대접전 끝 “우리가 8강”

취문고가 11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12회 연장 승부 끝에 유신고를 3-2로 제압하고 8강에 선착했다. 동산고도 평평한 접전 끝에 3-2로 세광고에 이겼고, 마산고는 대회 첫 홈런포를 앞세워 공주고에 8-5로 역전승했다.



마산 강원형 대회 첫 홈런포... 공주에 역전 동산 김경태 호투 힘입어 세광 꺾고 8강행

■ 오늘의 무등기 야구

16강  
삼원고-청원고(10시)  
부천고-화순고(12시30분)  
진흥고-광주일고(오후 3시)  
부산공고-서울고(오후 5시30분)

취문고가 11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12회 연장 승부 끝에 유신고를 3-2로 제압하고 8강에 선착했다. 동산고도 평평한 접전 끝에 3-2로 세광고에 이겼고, 마산고는 대회 첫 홈런포를 앞세워 공주고에 8-5로 역전승했다.

취문고가 11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12회 연장 승부 끝에 유신고를 3-2로 제압하고 8강에 선착했다. 동산고도 평평한 접전 끝에 3-2로 세광고에 이겼고, 마산고는 대회 첫 홈런포를 앞세워 공주고에 8-5로 역전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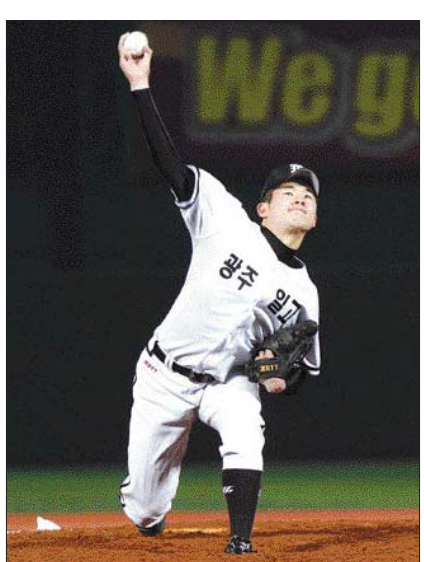
악송구가 나오면서 주자가 홈을 밟았고 타자는 2루까지 진루했다. 희생번트와 내야안타로 1점을 추가하며 점수는 2-2가 됐다. 이후 양팀은 나란히 만루 찬스에서 득점 기회를 놓쳐 연장전에 돌입했고, 12회말 무사 2루에서 김재윤이 정수빈에게 끝내기 2루타를 터트리면서 3시간 42분간의 승부는 3-2 취문고의 승리로 끝났다. 허준혁과 정수빈은 승리투수와 패전투수, 김재윤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면서 세 명의 대표선수 후보가 엮였다.

동산고는 1회초 2사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정기원이 폭투로 2루까지 진루한 뒤, 최지만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며 1-0으로 앞서나갔다. 5회 이인환과 정기원의 연속 3루타로 1점을 추가한 동산고는 6회초 투수 교체 실패로 2점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지만, 7회말 다시 반격에 나섰다. 7회 1사 만루에서 5번 민찬희의 2루수 앞 땅볼로 3루 주자 이인환이 홈인하면서 3-2로 동산고가 다시 경기 기선을 잡았다. 6회 투아웃 이후 마운드에 오른 동산고의 김경태는 7, 8, 9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공주고 5-8 마산고  
마산고는 역전과 재역전의 명승부를 펼치

‘KIA 1차 지명’ 정성철 몸값 2억2천만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내년 1차 지명한 신인 정성철(18·광주일고·사진)과 11일 계약금 2억원, 연봉 2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에 계약했다. 키 185cm, 몸무게 84kg의 다부진 체격인 정성철은 우완 정통파 투수로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3km이며 커브와 슬라이더를 던진다. 지난주까지 올해 각종 고교대회에서 5경기에 출전, 2승무패를 기록 중이며 26과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36개를 잡고 평균 자책점 0.34를 올렸다. 정성철은 3월 제62회 황금사자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퇴장 판정에 모자 던진 우리 이광환 감독 경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올 시즌 프로야구 사령탑으로는 처음으로 퇴장 당한 우리 히어로즈 이광환 감독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면 처벌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감독은 전날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벌어진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에서 강광희 구심과 스트라이크 판정을 두고 심한 설전을 벌이다 퇴장선인 순간 모자를 감 구심에게 던지기도 했다.

홍준표 한나라 원내대표  
대한태권도협회장 당선  
홍준표(54)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24대 대한태권도협회장에 당선됐다. 재직 대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과반인 16표를 얻어 8표를 획득한 김성태(60) 부산협회장을 제치고 차기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현 집행부의 총사퇴 결의로 신임 회장은 김정길 전 회장의 잔여 임기 7개월에 원래 임기 4년을 가산, 2013년 1월 말까지 약 4년7개월 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심판 판정 공정한 명문대회 실감”

■ 인재 찾기 나선 프로구단 스카우터들  
올 해로 15회째를 맞은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공정한 심판판정으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회, 프로야구 8개구단 스카우터들로부터 낙점받을 수 있는 경연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등기 야구대회는 전국 주요 고교야구대회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전국 고교야구 팀과 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의 관심과 애정은 어느 대회보다 뜨겁다. 이처럼 무등기 야구대회가 전국의 고등학교와 프로야구 스카우터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것은 어느 대회보다 공정한 경기진행으로 참가팀들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스카우터들이 제대로 선수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대회 운영이 야구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의 우수한 야구 명문들이 대거 출전, 올 해는 프로야구 8개구단에서 2명씩의 스카우터들이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아 ‘보물 찾기’에 나서고 있다. 통상 대방이나 화방 등 지방에서 치러지는 야구대회에는 프로야구 8개구단에서 1명씩의 스카우터를 파견하는데 2명씩의 스카우터들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있는 것은 무등기 야구대회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올 해 무등기에는 덕수고, 경기고, 장충고와 광주일고, 동성고 등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들이 모두 출전했고, 각 팀에 소속된 청소년 대표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찬관 KIA 타이거즈 스카우터 팀장은 “무등기는 공정한 경기진행으로 전국 고교야구팀 감독들에게 인식이 돼 앞 다투어 출전을 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 신인2차 지명시기(8월 18일)를 앞두고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각 프로야구 스카우터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KIA 마운드 에이사로 떠오른 윤석민도 무등기를 통해 스카우터 됐다”고 밝혔다. 윤석민은 지난 제11회 대회에서 야탑고 에이사로 모교를 준우승으로 이끌어 주목을 받았고, 신용운은 제8회 대회에서 감투상을 받았다. 또 한화의 류현진과 KIA의 한기주도 무등기가 배출한 스타다. 이종호 공주고 감독은 “전국 어느 대회보다 판정이 공정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실력껏 경기를 펼칠 수 있다”며 “대회 운영도 깔끔하게 치러져 앞으로도 계속 출전하겠다”고 호평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등기스타 -마산고 강원형

“내 우상은 KIA 장성호 선수”



“KIA 장성호 선수같은 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1일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공주고와 마산고 16강전에서 우측 펜스에 꽂히는 대회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된 강원형(마산고 3년)은 “뭉뚱 직구를 받아 친 것이 행운이 따르려 홈런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교부터 KIA 장성호 선수를 우상으로 생각하며 야구를 해 왔다는 강원형은 1m77cm, 80kg의 특이한 체구에 파워배팅을 구사해 4-5번을 오르내리며 팀의 주축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팀을 4강까지 올려 놓는게 목표라는 강원형은 지난 황금사자 대회에서도 4타수 2안타로 타격 재능을 발휘하는 등 몰론 타격감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솔로 홈런 포함 5타석 4타수 3안타 볼넷 1개, 3타점을 기록해 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